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수호되는가

침략이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요 지향이다. 평화와 있어야 인간의 삶도 지고 발전과 번영도 이룩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는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평화를 갈망했지만 홀려온 역사는 무수한 전쟁들로 얼룩져왔다. 평화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 민족처럼 그것을 가장 강렬히 열망해온 민족도 흔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 전쟁을 비롯하여 외세의 끊임없는 침입과 전란을 겪어왔다.

지난 세기 50년대 초에는 외세에 의해 3년간의 참혹한 전쟁도 겪었다.

악독한 일제의 식민지기 반에서 해방되고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 되어 국민의 마지못한 울며 울려갈 때 공화국의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전쟁의 무서운 참화가 들끓지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외세가 강요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평화롭던 도시와 마을들이 제더미로 화하고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역사는 평화와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생동하게 깨우쳐주고 있다.

평화는 또한 구절한다고 해서, 무엇을 양보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번 양보하면 두번, 세번, 나아가서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맹목적인 국제관계 현실이다.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게 양보한 대가로 차례지는 것은 결국 주권의 상실이고 노예와 다름없는 삶

이다.

오늘 적대세력들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 조선에 대해 감행하고있는 비열한 적대사업 살책동은 어느 특정한 분야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와 경제, 군사, 사상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은 해마다 그칠새가 없고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기 위한 제재와 봉쇄책동도 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오늘까지도 가장 가혹하게 감행되고 있다. 공화국인민들의 정신을 무장해제시키고 국가와 인민을 갈라놓으려고 벌리는 사상문화 좌절투쟁도 그치지 않고 악랄하고 집요하다. 이 모든 책동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것은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굴복시키고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적대세력들이 자주기의 기치를 끝까지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도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는 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막는 그 힘, 자위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신 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쌓으신 커다란 업적이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난 세기 60년대에 조성된 국제정세와 조국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로선을 내놓으셨다. 그리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도 내놓으시어 온 나라를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쳐몰리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셨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나라의 군력을 다지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셨다.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의 련이 붕괴와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 여러해째 계속된 큰물피해로 하여 류례없이 간고하고 어려웠던 그때 그이께서는 사랑이 없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는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을 헤쳐가시었으며 그 길에서 조국도, 사회주의도, 인민의 운명도 지켜지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의 군력은 더욱더 장성강화되었다.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고 국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군년됨, 애국년됨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공화국인민 누구나 군력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못하고 있다.

조국수호, 군력강화의 낮과 밤을 무수히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화신같은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하여,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힘써 실천해오신 그 멀고 험한 길은 적대세력들의 회유기만과 위협공갈, 극악한 제재와 강행통과하여야 하는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그이께서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아슬아슬한 조립현장, 포연 자욱한 발사장들을 찾으셨으며 기발한 과학적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며 국방력강화를 정력적



으로 이끄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철벽하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이 땅위에 영원한 평화의 푸른 하늘을 펼쳐주시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와 인민, 력사와 세계앞에 쌓아올리신 하늘에 닿을 업적이다.

최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고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군력을 가지셨으며 공화국은 오떡없고 이 땅의 평화는 오떡도 래일도 굳건히 수호되게 되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 ◎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주석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경공업공장들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다짐이불누뭇기를 거쳐 내려오는 비단이 불친의 색이 우아하고 고상하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천과 솜이 다 국산화

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불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봉사에서 진실성과 편리성을

네해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한 종합봉사기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미래상점과 대청되게 건설된 종합적이며 다기능적인 봉사기지를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봉사의

본사기자

세상을 둘러보면 현대문명과 억대의 재부를 자랑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그것은 모두 특권층들의 소유로 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에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문명과 행복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근로하는 인민대중이라는 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주제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바로 공화국의 사회주의이다.

주제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은 인민에 대한 열심복무정신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최대의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되고 있다.

돌아보면 인류역사에서 인민관의 숭고한 경지를 개척하신 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은 지난날 천대와 멸시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고 인민의 존엄을 최절정에 올려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신 아버지수령님의 뜻, 인민이 바라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고계신다.

언제인가 외국의 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실려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어 인민들의 편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일에서 종사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있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세상에 돌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책에서가 아니라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고있기에 공화국인민은 국가와 제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있으며 그것을 빛내이는 길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사랑, 이것을 떠나 조선식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김주혁



에로부터 평양은 산천경계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가 시작된 민족의 발상지, 민족문화의 중심지이며 조선민족의 자랑스러운 성지이다.

평양은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수도였고 고구려의 장수왕때인 427년에 기본수도를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성으로 옮기면서 수백년간 천년강국 고구려의 수도로 이름을 떨치었다.

이러한 평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때로부터 공화국의 수도로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들었다.

공화국의 역사는 70여년, 반만년의 민족사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이 나날에 평양은 천지개벽의 새 모습들을 펼쳐왔다.

평양전변의 력사에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고한 환경생 구원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애민헌신이 어려웠다.

해방후 몸소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며 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를 지퍼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지도해주시었으며 전후에는 몸소 평양시 복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어 수도건설을 지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을 전쟁전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하여 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도에 정부청사가 아니라 인민들의 살림집부터 먼저 일떠세우도록 하시었다.

그 나날 때로는 이슬에 젖은 풀을 헤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몸소 배를 타고도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며 명당자리들에 인민의 집터를 잡아주시었고 평양에 새 집들이 줄줄이 일떠서게 된 그때에는 새로 지은 집들이 인민들의 마음에 들었는가 하는 생

각으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신 아버지수령님이다.

모란봉극장,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에 높이 솟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결코 웅장 화려한 건축미만으로 그들로서 사람들의 부러움과 경탄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의 꿈과 리상, 지향의 깃들여있고 인민들에게 문명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각으로도 마음 놓지 못하신 아버지수령님이다.

모란봉극장,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에 높이 솟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결코 웅장 화려한 건축미만으로 그들로서 사람들의 부러움과 경탄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의 꿈과 리상, 지향의 깃들여있고 인민들에게 문명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전변의 력사가 펼쳐진 평양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속에 천리마대고조시기 건설자들은 수천세대분의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3~4년이 걸려야 지을수 있던 2만여세대의 주택을 단 한해 사이에 건설하는 기적의 속도, 14분만에 한세대씩 살림집을 조립하는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세상을 놀래웠다.

이때부터 평양속도는 천리마속도와 함께 공화국의 눈부신 발전속도를 표현하는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평양을 인민의 수도로, 웅장화하여 도시로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구상이고 의지였다.

언제인가 한 일군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날의 평양시건설에서도 속도전을 벌려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평양의 력사에 평양변영기를 기록하려고 한다고,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대상을 포함하여 수십개의 기념비적 건축물을 일떠세우면 평양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도시로 될 것이라고 하시었다.

만수대예숙장과 락원거리건설로 평양변영기의 서막을 여신 그이께서는 수도 중심부에 인민대학습당과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대동강변의 문수지구에 웅근 하나의 도시와 맞닿는 문수거리가 일떠서고 대חק거리, 창광거리(2개단), 천리마거리(2개단) 등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시내도처에 20층, 30층, 40층의 고층주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다.

현대적인 거리들과 배합되어 창광원, 빙산관, 청류관, 평양고려호텔, 봉화예술극장 등 현대적건축물들이 일떠서고 평양시화철도가 훌륭히 건설되었으며 만경대유류장과 물놀이장, 대성산유류장 등이 건설되었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속에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청년호텔을 비롯한 기념비적 건축물들, 봉사망들이 들어앉은 광복거리와 대규모체육촌인 청춘거리가 현대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5월1일경기장,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등이 줄지어 일떠서 평양의 모습은 완전히 변모되었다.

주체78(1989)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전변의 력사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세계 110여개 나라의 수도건설력사를 놓고 보아도 15년동안에 여러개의 현대적인 거리들과 수백개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레가 없다고, 평양변영기의 나날에 우리 인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속도를 창조하였다고 하시었다.

오늘 평양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주석께서 펼쳐주신 건설의 대변영기속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기상을 안고 청춘도시로 더욱 훌륭히 전변추적하시면서 세계 110여개 나라의 수도건설력사를 놓고 보아도 15년동안에 여러개의 현대적인 거리들과 수백개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레가 없다고, 평양변영기의 나날에 우리 인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속도를 창조하였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에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산장, 온화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야동병원, 류경치과병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등 수많은 창조물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에서 하신 연설에서 최근에 평양시에 안파병원과 치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과 야동병원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더 높은 성과로 포부에 비해볼 때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안에서 명당자리인 이곳에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 이 크게 건설되었을것을 아쉬워하며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인민들도 남다른 로소모두가 다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평양변영의 최전성기를 펼쳐온 벅찬 나날을 통하여 인민은 그이시야말로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창조자의 거장, 걸출한 위인이심을 더욱 심장깊이 감회하였다.

공화국인민은 수도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서 평양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인민의 도시로 건설하신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은덕, 불멸의 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갈 것이다.

염성룡